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마음의 변민은 하느님의 성전정화 때문

나에게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적인 갈등과 격변이 일어나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얼른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느님이 그 사람의 낡아빠지고 좁아터진 삶의 방식을 부수려고 개입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에 의해 한 번 설정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 혹은 보다 넓은 삶의 시야를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은 내가 변화해서 새로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낡은 삶의 방식을 무너트리고 새로운 질서를 잡으시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과 변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낡은 삶을 유지하려는 마음과 그것을 부수려는 하느님의 마음이 부딪혀서 마음속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낡은 삶을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잡아주시려는 하느님의 작용을 잘 견디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리치료의 관건입니다. 그것을 잘 견뎌낸 사람은 증상의 치유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치유과

정을 통해 나는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인간 개개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느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당신 몸을 성전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역시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기 위해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힘을 느끼지 못하고 늘 갈등과 번민 속에 사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생긴 죄와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영적인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무지와 어리석음이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은 그런 장애물들을 성전 안에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것처럼 채찍을 휘둘러서 쫓아내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에서 잡상인과 환전꾼을 쫓아내시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은 죄, 마음의 상처, 무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무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잡아주시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류를 계도하기 위해 종교가 만들어 낸 가공의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분을 종교는 인류에게 알려 준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심층심리학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실제적인 현상으로 인간 삶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자연과학적인 견지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인간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질서가 나타납니다. 그 질서는 각 개인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신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인간 내면의 불가사의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층심리학에서는 그 힘이 인간의 의식에 끼치는 영향력을 통해 볼 때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작용과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작용이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관찰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작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먼저 마음의 고통과 번민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하느님을 먼저 견뎌내야 합니다.

구담 본당 김기환 요셉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 제3주일을 지내며 극심한 수난을 받으시는 중에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해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고 지혜이며, 희망이고 사랑의 절정입니다. 주님과의 더욱 깊은 일치에로 나아가도록 은총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본기도

†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탈출기 20장 1절-17절

안 내 :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묵 상 :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당신의 법을 알려주심은 모든 창조물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2독서 : 코린토 1서 1장 22절-25절

안 내 :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묵 상 :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힘이시며, 강함이고 삶이며 행복이십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 요한 2장 13절-25절

강 론 : ‘마음의 번민은 하느님의 성전정화 때문’(1-2쪽)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예수님께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늘 예수님께 신기한 기적들을 요구하면서도
늘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만 행하며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시지요.

<침묵>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사순시기가 되면 더 많은 기도를 하며
절제와 희생과 극기를 하는 우리는
행여나 저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기대하며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침묵>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신앙을 되돌아보며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 않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 어리석음이 실상은 지혜이고, 그 약함이 더 큰 강함입니다.
죽음을 통해 드러난 사랑과 희망과 생명 가득한
그 절절한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 공소사목 성금

사근공소	50,000원	김득순님	10,000원
배규철님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65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지구 구역·반장연수

- 상주지구 : 3월 4일(주일) 계림동 성당
- 북부지구 : 3월 11일(주일) 휴천동 성당
- 동해지구 : 3월 18일(주일) 영해 성당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필기도구, 미사준비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주일학교 수녀모임

- 일시 : 3월 5일(월) 13:30 - 6일(화) 13:00
- 장소 : 베들레헴 공동체(포항)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 참가비 : 45,000원
- 신청 : 2월 28일(화) 사목국으로

■ 예비신학생 개강미사

- 일시 : 3월 10일(토) 14:00
- 장소 : 교구청

■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

- 일시 : 3월 10일(토) 13:30 ~ 11일(주일) 15:3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본당 중·고등부 회장단
- 참가비 : 1인 40,000원
- 준비물 : 지난 해(2017년) 본당 주일학교 행사일정표, 세면도구, 미사준비, 필기구, 두레판 3월호
- 신청 : 3월 5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1

- 일시 : 3월 12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3,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교구 수도자 모임

- 일시 : 3월 13일(화) 10:00 - 16: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본당, 공소(농민)사목 수녀, 출판 및 사회복지관, 교육기관 수녀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 신청 : 3월 8일(목)까지 사목국

■ 청년연합회 합동미사

- 일시 : 3월 4일(주일) 15:00
- 장소 : 교구청
- 준비물 : 미사준비

■ 제4회 한국청년대회 참가자 모집

- 주제 :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
- 일시 : 8월 11일(토) - 15일(수) 4박 5일
- 장소 : 서울대교구
- 대상 : 만 16세(고1) ~ 만 39세
- 참가비 : 20만원

(참가비 15만원+교구회비 5만원)

- 신청 : 3월 7일(수)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교구 홈페이지(<http://www.acatholic.or.kr>)에 자세한 일정과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로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3월 10일(토) 14:00
3월 11일(주일) 10:00, 14:00
- 장소 : 부산 본원 및 원하는 장소
- 문의 : 010-9319-1690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6장
사목적 전망

죽음의 가시가 박힐 때에

253. 때때로 가정의 삶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과 동행하려면 신앙의 빛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가정을 모른 척하는 것은 자비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목적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다른 모든 복음화 활동에 대한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254. 저는 사랑하는 이, 곧 많은 것을 함께 나눈 배우자를 잃어버린 이들이 느꼈을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의 죽음에 마음이 북받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요한 11,33.35 참조). 그리고 어찌 우리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과거와 미래를 삼켜 버리는 심연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심지어 하느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크게 분노합니다. 저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별하여 혼자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더 많은 힘을 쏟아 부으며 전념하고, 이러한 사랑의 경험 안에서 새로운 교육적 사명을 발견합니다. ……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애정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친지가 없는 이들을, 특히 그들이 가난하다면,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255. 일반적으로 죽은 이에 대한 애도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며, 사목자가 이러한 애도 과정에 동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계의 요구에 맞춰야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의문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이유, 할 수 있었으나 하지 못한 것들, 죽음을 맞이한 순간의 경험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내적 해방의 진지하고 끈기 있는 여정으로 평화는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비탄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다음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수행하여야 할 사명이 있으며 고통을 마치 죽은 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인 양 고통을 길게 이어가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은 우리의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우리 삶을 망치는 것은 그를 만족시키지도 않습니다. 죽은 이를 늘 생각하고 언급하는 것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지금 저 세상에 있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현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강력하다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아가 8,6). 사

량은 직관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소리 나지 않는 것도 듣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과거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변모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벗인 마리아가 당신을 끌어안으려고 하자 마리아를 또 다른 만남으로 이끄시려고 당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요한 20,17 참조).

256. 죽은 이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위안이 되고,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헛되게 하며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공허함으로 밀어 넣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지혜 3,2-3 참조). 바오로 성인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필리 1,23). 예수님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것”(1코린 2,9 참조)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령 감사송은 “저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오니”라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는 공허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하느님의 선하고 강한 손에 맡겨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257. 세상을 떠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 었다.”(2마카 12,44-45)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순교자들이 여정에 있는 이 세상과 연대하여, 지상에서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전구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묵시 6,9-11 참조). 일부 성인들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위로하였습니다. 리지외의 데레사 성녀는 하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 [사람들이] 은총을 얻는 데에 더욱 힘을 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사랑의 유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형제들과 나그네들의 결합은 조금도 중단되지 않으며 …… 영신적 선익의 교류로 더욱 튼튼해집니다.”

258.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묵시 21,4) 때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우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또한 세상을 떠난, 우리가 사랑했던 이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던”(루카 7,15 참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해 주실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먼 과거에만 머무르며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더욱 잘 살수록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수록 하늘 나라의 잔치에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에 계속 -



무탄트 메세지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아침부터 카톡방이 떠들썩하다. 축하 문자에 예쁜 그림까지 곁들여 온다. 함께 활동하는 신심 단체 봉사자들이 보낸 것이다. 축일을 기억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들이 고맙다.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 때 자신이 흠모하는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는다.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축일은 영명축일(靈名祝日)의 준말인데 그 성인의 축일이 나의 축일이 된다. 처음에는 세례명이 어색한데 이내 익숙해진다. 신자끼리는 거의 세례명으로 부르는데 그걸 통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인임을 늘 기억하자는 서로간의 격려와 위로가 담겨 있다. 축일, 즉 새로운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도 같을 것이다.

축하 문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개 달다가 멈추었다. 과연 축하를 받을만한가. 지난 한해 세례명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가. 주보성인의 덕성과 삶을 본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아니 신자로서 기본은 했던가. 문득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생각나던 호주 원주민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무탄트 메세지’를 읽은 것은 십여 년 전이다. 말로 모건이라는 미국 의사가 호주 원주민인 ‘참사람 부족’과 함께 생활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어느 날 그들과 생일파티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저자가 케이크 축하노래 생일선물 등을 설명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꽃은 양초의 수도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하자 그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하죠? 축하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아요.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겁니다.” 모건이 물었다. “나이를 먹는 것을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하죠?” 그들이 대답했다. “나아지는 걸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지요.”

어릴 때 어머니는 생일을 잘 챙겨주셨다. 자연 성인이 되어서도 오래 축하받고 대접받고 싶었는데 이 원주민들의 얘기를 듣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는가. 당연히 생일은 특별한 날이지만 축하하는 것과 축하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축하받을만한지 어떤지를 나는 알고 있으니까.

지난해 더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더 사랑하지도 못했다. 시간을 나쁜 데 쓰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에 몰두하지 못했다. 신앙인으로서는 어땠는가. 하루도 온전히 그분께 떳떳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분명 없다. 내 세례명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시내에 있는 봉사자들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한다. 저들끼리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한 모양이다. 고마웠지만 선약을 핑계로 사양했다. 오늘 하루 더 부끄럽고 쓸쓸하게 보내야겠다. 내년에는 내가 먼저 파티를 준비하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